

조선후기 영남 문집 목판본 간행의 확산 양상에 관한 연구*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을 중심으로 -

Spread of Publication of the Literary Collection by Wood-block printing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 Centered on wooden blocks for printing housed in KSAC -

손 계 영(Ke-Young Son)**

〈목 차〉

I. 머리말	IV. 18~19세기 서원 중심으로의 확산
II. 16세기 이전 국가사업으로서의 문집 간행	V. 19세기 후반 이후 양반층 저변으로의 확산
III. 17~18세기 전반 지방관료 중심으로의 확산	VI. 맺음말

초 록

이 논문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목판본 문집 간행의 문화적 양상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조선 초기 조정에서는 명현의 글을 보존하기 위해 문집 간행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되었으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집 간행을 주도하였다. 16세기부터 18세기 초반에는 감사·수령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어 그들의 주도에 의해 지방관아에서 문집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17세기를 거쳐 18세기 초중반에는 부세 제도 변화로 지방관아의 재정이 제한되어 문집 간행 사업이 현격하게 줄어든 반면, 숙종대에 서원의 수가 폭증하자 지방관 중심의 문집 간행이 18~19세기에는 서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이전 시기의 형태들이 여전히 존재하였던 반면, 서원의 제도권에 속하지 못하거나 서원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던 사족들의 문집 간행이 19세기 말부터 폭발적으로 이루어져 양반층 전반의 문화로 확산되어 갔다.

키워드: 책판, 목판본, 문집, 지방관, 서원, 출판, 간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cultural aspects of the publication of literary collections have been changed from its time throughout the entire Joseon Dynasty. At the royal court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need for publication of the literary collections has consistently arisen to preserve writings of the noted sages, and the Joseon government was also taking the lead and promoting the publication of the literary collections. From the 16th to the early 18th century, the publication was intensively made at the local governments led by local governors. From the 17th to the early to middle of the 18th century,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were limited with the changed taxation system, and there had been a dramatic decrease in the number of literary publication projects. On the other hand, with the sudden increase of the number of Seowons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the focus of the literary publication was moved to Seowon from the 18th to the 19th century.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eowon Abolition Decree, the collections were still published at Seowons, however from the end of 19th century, the publication of literary collections had been explosively made by aristocrats who did not belong to the institution of Seowon or could not receive Seowon's support, which spreaded over the entire Yangban culture.

Keywords: Blocks for printing, Books of wood-block printing, Literary collection, Local governor, Seowon (private academy), Publication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358-2011-1-H00001]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sonkey@cu.ac.kr)

• 논문접수: 2013년 8월 22일 • 최초심사: 2013년 8월 27일 • 게재확정: 2013년 9월 17일

I. 머리말

한국국학진흥원에는 6백여 종의 서책을 간행할 때 사용되었던 각 페이지별 인쇄 책판이 6만여 점 소장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37%, 20세기의 것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영남지역 책판의 간행시기가 19세기에 들어 폭증하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며,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그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점은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았다. 타지역에서는 19세기 이후 상당수의 문집 간행에 목판본 인쇄 방식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책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용으로 서책을 간행할 수 있는 목활자가 비교적 널리 쓰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연활자나 석판 인쇄 등의 새로운 인쇄방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영남지역에서는 여전히 제작과정에서 고비용이 요구되는 책판 인쇄를 선호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19~20세기에 영남지역에서 목판본 문집 간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책판 간행이 양반층 저변으로 확산되어 가는 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초기부터 문집 간행의 성격과 간행주체의 변화 과정을 시기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문집 간행의 문화적 양상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다루고자 한다.

시기에 따라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조선전기인 16세기 이전 임금의 주도 하에 조정에서 문집 간행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했던 배경에 대해 다루고, 두 번째는 17~18세기 전반 중앙에서의 문집 간행이 지방관 중심으로 확산되는 과정과 그 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세 번째는 18~19세기 지방관 중심에서 서원 중심으로 확산되는 현상과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19세기 후반 이후 양반층 저변으로 확대되는 양상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II. 16세기 이전 국가사업으로서의 문집 간행

여말선초의 문집 간행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는 아니었다. 대부분 불경 간행에 집중되어 개인 문집의 간행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崔瀼(1287~1340)의『東人之文』을 편찬하면서 간행되는 문집이 적음을 한탄한 것에서도 알 수 있으며,成俔(1439~1504)의『慵齋叢話』에 실린 고려시대 別集의 書目이 매우 빈약한 점에서도 드러난다.¹⁾

조선초기에는 그리 많지 않은 문집이 간행되었는데,²⁾ 문집의 간행 주체는 형식적으로 저자의 자

1) 신승운, “성종조의 문사양성과 문집편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8권, 제1호(1995), p.19. 참조.

2) 대표적인 문집으로는 대조조의『三峰集』, 태종조의『牧隱集』·『陶隱集』·『遁村雜詠』·『圓齋集』, 세종조의『春亭集』·『圃隱集』·『復齋集』·『陽村集』, 세조조의『獨谷集』·『亨齋詩集』·『眞逸遺稿』 등이 있다.

제 또는 문인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명에 의해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成石璘(1338~1423)의 『獨谷集』은 그의 손자사위 金連枝(1396~1471)가 평안감사로 있던 1456년(세조 2)에 간행되었으나, 1442년(세종 24)에 임금이 편집을 명하였던 유고이다.³⁾ 卞季良(1369~1430)의 『春亭集』 간행도 이와 유사한 사례인데 문집의 발문에 관련 내용이 남아있다.

문인 判承文院事 臣 鄭陟이 그[卞季良]의 유고를 찬집하였다. 지금 경상도 감사 臣 權孟孫도 그의 문인으로 이를 간행하고자 한 본을 잘 베껴 사유를 갖추어 임금에게 아뢰자, 그 즉시 윤허하였다. 그리고 집현전 직제학 臣 柳義孫과 著作郎 臣 金瑞陳에게 명하여 같이 교정을 보게 한 다음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쓰게 하고 또 신에게 명하여 책 끝에 발문을 쓰라고 하였다.⁴⁾

변계량의 『춘정집』 간행은 그의 문인 경상감사 權孟孫(1390~1456)에 의해 밀양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이전에 변계량의 문인들이 세종에게 간행을 요청하여 왕명에 의해 집현전에서 교정·改寫가 진행되었다. 특히 ‘임금이 그의 유고가 湮滅될 것을 걱정하여 집현전에서 교정을 보게 하고 경상도에 간행을 명하는’ 등 임금의 命刊이 있었던 점에서 보다 공식적인 성격을 띤 간행이었다.⁵⁾ 임금이 편찬을 명하였던 문집의 간행이라는 점에서 이는 후손에 의한 혈연적 출판이라기보다는 왕명이라는 간접적 방식에 의한 공적 간행의 의미가 내포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초기의 문집 간행은 후손·문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 기저에는 왕명에 의한 간접적 방식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저자의 유고를 보존하려던 국가의 소극적 개입 의도를 찾을 수 있다.

세종조의 간접적 개입에 의한 문집 편찬과 간행은 성종조에 이르러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성종은 세종의 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당대인의 문집을 직접 乙覽·命刊하는 등 간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성종은 兪好仁·曹偉·金緒·申從濩·許琛 등이 지은 저작을 매년 베껴서 바치게 하였으며, 徐居正·盧思愼 등에게 『聯珠詩格』·『黃山谷詩集』을 번역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집 간행을 주도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신숙주·최항의 유고를 보고 장차 간행하려 한다. 서거정의 稿本은 죽은 뒤에 또한 간행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문장에 능한 자의 草稿는 잃어버리지 말고 모아서 책을 만들어 歲抄 때마다 入啓하게 하면, 반드시 애써서 지을 것이다.” 하였다.⁶⁾

3) 趙瑾, 『獨谷集』, 『獨谷集跋』, “且其侍側無子姪之好文者載緝之 以故詩文行世者甚少 在世宗壬戌之歲 命經筵官編次是稿”
4) 安止, 『春亭集』, 『春亭集舊跋』, “門人判承文院事臣鄭陟 纂集遺藁 今慶尙道監司臣權孟孫 亦其門人也 欲繡諸梓 繕寫一本 具由上聞 卽賜允俞 仍命集賢殿直提學臣柳義孫 著作郎臣金瑞陳同加校證 使善書者改寫 又命臣跋其卷端”
5) 權踞, 『春亭集』, 『春亭集舊序』, “我殿下萬機之暇 追念師臣 惜其遺藁湮沒 下集賢殿讎校 命慶尙道錄梓 以廣其傳 其所崇儒重道好學樂善之德 高出百王之萬萬也”
6) 『성종실록』 성종 15년(1484) 7월 5일, “傳于承政院曰 予觀申叔舟崔恒遺藁 將欲刊行 徐居正之藁 身歿後 亦當刊行矣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3호)

성종은 신숙주·최항·서거정의 유고를 간행하려는 의도를 밝혔고, 이러한 의도에는 왕명에 의한 간행을 통해 문인들이 좋은 글을 쓰게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1483년(성종 14) 姜希孟(1424~1483)이 타계하자 성종은 왕명을 내려 저자의 유고를 편집하게 하고 을람을 거쳐 도서관에서 간행하도록 하였다.

선생이 돌아가시자 성상(성종)께서 그 시문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특별히 편집하여 들이라 명하시니 진실로 근래의 선비로서 받은 적이 없었던 큰 은총이었다.⁷⁾

성종은 명현의 시문집 편찬과 간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을람 이후에는 왕명에 의해 도서관에서 그들의 유고를 鑄字로 간행하게 하였고, 후손들은 이를 대단한 영예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성종의 적극적 命刊은 국가적 차원의 문집 간행을 정착시킨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성종의 을람과 명간을 통해 간행되었던 문집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성종의 命刊에 의한 문집

간행시기	문집명	저자	간행자	비고
1483년(성종14)	私淑齋集	姜希孟(1424~1483)	도서관	成宗 命編・命刊
1486년(성종17)	太虛亭集	崔恒(1409~1474)	후손	成宗 命刊(1484년)
1487년(성종18)	保閑齋集	申叔舟(1417~1475)	도서관	成宗 命刊(1484년)
1489년(성종20)	四佳集	徐居正(1420~1488)	도서관	成宗 命編・命刊
[성종연간]	拭廂集	金守溫(1409~1481)	도서관	成宗 命刊
[성종연간]	楊軒集	李石亨(1415~1477)	후손	成宗 命刊
1496년(연산군2)	雷溪集	俞好仁(1445~1484)	후손	成宗 乙覽
1498년(연산군4)	佔畢齋集	金宗直(1431~1492)	도서관	成宗 乙覽
1518년(중종13)	三灘集	李承召(1422~1484)	후손	成宗 乙覽

※ 신승운, “성종조의 문사양성과 문집편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8권 제1호(1995), p.24 내용을 인용한 것임

성종대에 시작된 을람과 명간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해당 문집의 가치를 부여하였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문집 간행이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사업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종의 재위기간 동안에 을람 또는 명간 없이 이루어진 문집 간행이 거의 없었던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⁸⁾

조선초기 명현의 문집이 임금의 을람과 왕명에 의해 간행되고 있었으나 그 대상은 극소수의 인물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간행된 문집이라도 많은 수량이 배포되지 않아 뛰어난 명현들의

非徒此也 凡能文詞者草 毋令遺失 收拾成卷 每於歲抄入啓 則必刻意制之矣”

7) 徐居正, 『私淑齋集』, 『私淑齋集舊序』, “先生既沒 聖上欲壽詩文於不朽 特命撰次以進 誠近代儒者絕無之寵恩也”

8) 신승운, 전계논문, p.372.

유고가 흩어지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전기 조정에서는 문집 간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입장이었음을 1559년(명종 14) 실록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한때의 저술을 모두 印出하여 배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지은 것이라도 모두 천시하여 인출하지 않습니다. … (점필재 김종직의) 문집은 인출되었으나 지방의 목판은 희미하고 또 전하는 집이 드무니 中外에 인출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 (李荇, 南袞, 姜渾의) 저술도 중외에 인출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물됨에는 한때 비평하는 의논이 있었으나 그들의 저술은 볼 만하고 본받을 만하니 빛나는 재주를 버려서는 아니됩니다. 인출하도록 명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소서.⁹⁾

중국의 저술들은 대부분 인출되어 배포되었던 반면, 조선에서는 아무리 名人의 저술이라도 이를 천시하여 인출하지 않고 중국 서적을 우선시 여기는 풍조가 당시 논란의 대상이었다. 또한 이미 간행된 명현의 문집조차 관리가 소홀하여 다시 간행·배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요 인물의 문집 간행이 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교적 입장에서 조선의 대표적 인 명현 유고를 필요로 하였다.

원점사가 치계하기를, … “副使 王璽가 通事에게 ‘그대 나라는 문헌의 나라이니 문장에 능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학술이 程·朱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기에, 있다고 대답하니, 부사는 성명이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통사가 ‘전의 정몽주·권근과 뒤의 조광조·이언적이 바로 그 사람이고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로서는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 하니, 부사가 ‘그러면 필시 저술한 문집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통사가 ‘본시 있었지만 혹 자손이 불초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유실된 것도 있고 간혹 보전된 것이라도 完本이 대체로 적다.’ 하니…”¹⁰⁾

1568년 명나라 사신이 程·朱에 견줄만한 조선 인물의 문집을 요구하였을 때 명현은 있으나 그들의 유고가 유실되거나 불완전한 상태라 하며 유고를 선뜻 보여주지 못할 정도로 문집의 편찬과 간행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뛰어난 명현 또는 문장에 능한 文士의 유고가 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왕명에 의해 자손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고를 수습·편집하여 간행하였던 것이다.¹¹⁾

- 9) 『명종실록』 권25, 명종 14년(1559) 10월 19일, “中原則一時著述 皆印布 而我國 則雖名人所作 皆賤之不印……其集雖印出 而外方木板稀微 且人家罕傳 宜印布中外……此人等著述 亦宜印布中外 其爲人物 雖有一時之非議 其著述則可觀可法 材華不可棄也 請命印出 不使泯滅”
- 10) 『선조실록』 권2, 선조 1년(1568) 6월 29일, “遠接使馳啓曰…副使王璽謂通事曰 汝國乃文獻之邦 能文者固多矣 學術如程朱者有之乎 對曰 有之 副使曰 姓名爲誰 對曰 前則如鄭夢周權近 後則如趙光祖李彥迪 卽其人也 其餘亦多 而俺未能盡記其姓名 副使曰 然則必有著述文集行於世矣 對曰 固有之矣 但或因子孫不肖 而不能傳守 遺失者有之 雖或存者 完者蓋寡”
- 11)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1511) 3월 14일, “參贊官李世仁曰 今當右文興學之時 凡事不可不備舉 成宗朝教養文士人材大盛 如崔淑精成倪曹偉俞好仁朴闇金孟性魚世謙 皆一時名賢 金時習南孝溫 雖非中科第 亦一時文士 其文章遺稿 皆沈湮不傳 後之人何據而知一時文章之盛 且詩詞 本歌詠其風謠 以此知其風俗汚隆 政治升降 大有關於治體 不可

Ⅲ. 17~18세기 전반 지방관료 중심으로의 확산

명현의 문장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문집 간행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되었으나 증가하는 명현의 유고 간행과 이들 유고의 보급 확대라는 문제를 중앙의 교서관에서의 활자 인쇄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극히 적은 부수를 인출하는 鑄字 인쇄로는 많은 양의 유고를 널리 배포하기에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목판 인쇄로의 전환과 목판의 적극적 활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¹²⁾

목판 인쇄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분량을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지만 중앙에서 소화하기에는 물적 자원과 노동력·공간 등의 측면에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중앙에서 州府郡縣으로의 공간 확장 및 활자에서 목판으로의 인쇄기술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즉 지방에서의 문집 간행은 목판 인쇄를 통해 활성화되었고, 주부군현의 지방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부군현에서의 문집 간행 주체였던 감사와 수령은 임금의 대리인으로 해당 지역을 통치하는 인물로, 일반 행정에서부터 사법·군사권까지 관장하였던 지방관들은 정식 과거를 거쳐 중앙에서 인정한 관료 출신이었다. 해당 지역 출신인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임금으로부터 통치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지역으로 파견된 인물이었다. 이들은 문집의 간행 여부와 누구의 문집을 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을 가졌다.

18세기 이전 지방관아의 재정은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이었기에 선조의 문집 간행 등 수령 개인의 위선 사업에 적지 않은 비용이 사용되었으나 중앙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¹³⁾ 중앙에서는 명현의 후손들이 지방관으로 나가 선조 문집을 간행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 역대 명현의 문장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인식하였고, 지방으로 파견된 수령은 지방관아의 재정과 기술을 이용하여 선조 유고를 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의도와 수령 개인의 의도가 부합되었던 것이다. 즉 역대 명현의 문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공적 大義와 한 개인의 지방관이 선조 유고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적 취지가 부합하면서 지방관 주도의 문집 간행이 지방관아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갔다.

간행 대상인 문집의 저자가 해당 관아 소재의 지역인물과 관계없이 수령의 선조·스승 등 사적 관계에 따른 인물이었기 때문에 선조 문집 간행에 따른 지방관의 사적 권한은 더욱 증대되었다.

使泯滅無傳 右數人之子孫 必有先人遺稿 請搜括編集 開刊傳播甚當 上曰 前者已命搜編右人等集開刊矣 然可更命速刊也”

12) 여말선초에도 지방에서의 목판인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방 서책간행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엄격하여 지방관의 서책 간행 권한이 매우 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14년(1432)의 실록 기사에 의하면 ‘각도의 감사들이 제 마음대로 서책을 간행하고, 혹은 다른 도에서 이미 간행한 글을 간행하기도 하고, 혹은 긴요하지 않은 글을 간행하면서 한갓 財力만 허비하게 되니 실로 불편한 일이다. 지금부터 반드시 啓聞하고 간행하라’는 왕명에서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 세종 14년(1432) 8월 3일.

13) 손계영, “지방관과 선조 문집 간행,” 영남학, 제15호(2009), pp.229-269. 참조.

선조의 유고를 수습·정리하며 지방관으로 제수되기를 학수고대하거나, 지방관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선조의 유고 간행을 청탁하는 모습 등에서 간행 제도 및 인식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선왕고[姜鳳瑞]께서 일찍이 이를 통한으로 여겨 다년간 수집하여 선생의 외손인 판사 박사수와 함께 반복해서 교정을 보시고 편차하여 한 질로 만들었다. 부록에는 碑, 狀, 輓, 誄 등의 글을 교정하여 다시 잘 베껴놓았다. 그러나 재력이 없어 제때에 간행할 계획을 갖지 못했다. 내가 성은을 입고 음성현감이 되어 마침내 이행하였다.¹⁴⁾

선조의 유집과 부록은 지난 무자년에 작운 吳重周 공이 통제사로 있을 때 선친[鄭構]께서 일찍이 청하여 간행하였다. … 마침내 狀文 및 선조의 잃어버렸던 檄文 중 새로 얻은 것을 계속 간행하여 선친의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개인적인 재력으로는 쉽게 이를 수 없었다. 마침 작운공의 世孫 琰이 다시 통제사가 되었기에 내가 또 선친께서 작운공에게 청했던 식으로 그에게 청했더니, 공이 板材와 雕手를 모두 마련해 주어 열흘 넘겨 일을 마쳤다.¹⁵⁾

전자는 姜碩期的 『月塘集』 간행에 관한 내용이다. 1717년 강석기의 증손 姜鳳瑞가 선조의 유고를 수집하여 저자의 외손인 朴師洙와 편차·교정해 두었으나 私家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 문집을 간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 55년 뒤인 1772년 강봉서의 손자이자 저자의 5세손 姜命達이 충청도 陰城縣監에 제수되자 『월당집』을 간행하게 되었다. 즉 외직으로 제수되기를 기다려 선조의 문집 간행에 착수하였음을 볼 수 있다.

후자의 사례는 鄭文孚의 『農圃集』 간행에 관한 내용이다. 『농포집』은 저자의 증손 鄭構가 1708년 統制使 吳重周에게 간행을 부탁하여 문집을 初刊하였다. 이후 정구의 아들 鄭相點이 초간 이후의 글들을 보충하여 追刻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간행하지 못하였다. 마침 초간을 주도하였던 오중주의 조카 吳琰이 다시 통제사가 되면서 그에게 요청하여 板材 등의 물적 자원과 刻手 등의 노동력을 지원받음으로써 문집의 추각이 가능할 수 있었다.¹⁶⁾ 이처럼 서책의 간행은 재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가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이 지방관에 제수되기를 기다리거나 지방관과의 인맥을 통해 문집이 간행되었던 것이다.

전자와 같이 집안에 중앙으로 진출한 관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관에서의 문집 간행을 희망할 수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후자의 경우에는 私家에서 간행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14) 姜命達, 『月塘集』 卷8, 『月塘先生集跋』, “先王考蓋嘗慟恨於斯 多年蒐集 與先生彌甥朴判書師洙 正其繁複 編次爲一帙 附以碑狀輓誄等文字 校讎繕寫 而家無財力 未敢爲及時登梓之計矣 不肖蒙恩爲陰城宰 遂捐俸募工 以活字印若干本行焉”

15) 鄭相點, 『農圃集』, 『農圃集跋文』, “先祖遺集與附錄 往歲戊子 左尹吳公重周之莅統藩也 先人蓋嘗請而登諸梓……遂并狀文及先祖檄文見佚而追得者 欲繼入刊 以遂先志 顧私力未易就矣 適左尹公之世侄琰 復持是節 余又以先人之所以請於左尹公者請焉 公乃併惠板材與雕手 踰旬而功訖”

16) 이 경우에는 초간본을 주도하였던 통제사 오중주와 추각후쇄본을 주도하였던 통제사 오돌의 관계가 숙질간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맥을 동원하여 지방관의 공적 권한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17세기~18세기 초반에는 문집 간행이 수령·감사 등 지방관의 지위와 권한, 지방관아의 재정을 이용하여야 가능한 작업이었다. 또한 지역 인물 중심이 아니라 지방관과 사적으로 관련된 인물의 문집을 간행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의 문집 간행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들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조정에서 명현 문장을 보존하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가 지방으로 파견된 중앙관료의 특권문화로 확장되었는데, 이처럼 17세기~18세기 전반 문집 간행이 지방관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현상은 지방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문집 간행의 권한이 관료들의 특권문화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었던 데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2〉 지방관의 문집 간행 사례(일부)

간행연도	문집명(간행형태)	저자	간행을 주도한 지방관의 직위(성명)	저자와의 관계
1600년	益齋亂藁(三刊)	李齊賢	慶州府尹(李時發)	후손
1608년	圃隱集(五刊)	鄭夢周	黃海兵馬水軍節度使(鄭應聖)	후손(7세손)
1610년	立巖集(重刊)	閔齊仁	興海郡守(閔汝任)	손자
1611년	虛白亭集(初刊)	洪貴達	求禮縣監(崔挺豪)	외현손
1626년	牧隱藁(重刊)	李穡	順天縣監(李德洙)	후손(10세손)
1629년	高峯集(初刊)	奇大升	善山府使(趙繼韓)	손자사위
1631년	拙翁集(初刊)	洪聖民	安東府使(洪命壽)	손자
1632년	八谷集(初刊)	具思孟	三道水軍統制使(具宏)	아들
1632년	遁村雜詠(四刊)	李集	尙州牧使(李如圭)	후손
1634년	漢陰文稿(初刊)	李德馨	尙州牧使(李如圭)	아들
1635년	白沙集(重刊)	李恒福	慶尙右道兵馬節度使(鄭忠臣)	문인
1635년	疎菴集(初刊)	任叔英	連原察訪(姜與載)	문인
1636년	月沙集(初刊)	李廷龜	公州牧使(崔有海)	문인
1639년	耻齋遺稿(重刊)	洪仁祐	安東判官(洪有炯)	증손
1643년	獨庵遺稿(重刊)	趙宗敬	富平都護府使(趙滄)	증손
1645년	保閑齋集(重刊)	申叔舟	榮川郡守(申沔)	후손(7세손)
1647년	月汀集(初刊)	尹根壽	丹陽郡守(尹挺之)	손자
1648년	竹窓遺稿(初刊)	具容	榮川郡守(沈長世)	생질
1653년	畸庵集(初刊)	鄭弘溟	比安縣監(鄭漢)	조카
1653년	習齋集(重刊)	權擘	星州牧使(權諱)	증손
1653년	龜村集(初刊)	柳景深	河陽縣監(崔濟)	외손의 아들
1654년	龍溪遺稿(初刊)	金正男	山陰縣監(李觀夏)	외손
1658년	北渚集(初刊)	金瑬	青松府使(金震標)	손자
1659년	石樓遺稿(初刊)	李慶全	潭陽府使(李弼)	아들
1659년	峒隱稿(初刊)	李義健	大邱府使(沈長世)	고종사촌의 손자
1660년	桐溪集(初刊)	鄭蘊	省峴察訪(鄭岐壽)	손자
1665년	西垞集(重刊)	柳根	三陟府使(金震標)	외증손
1670년	獨石集(初刊)	黃赫	江東縣監(柳時蕃)	외손
1674년	松江集(重刊)	鄭澈	靑巖察訪(鄭治)	현손
1677년	湖洲集(初刊)	蔡裕後	長城府使(蔡時龜)	아들

1677년	秋江集(重刊)	南孝溫	金溝縣令(俞枋)	외증손의 증손
1680년	玉山詩稿(初刊)	李瑀	慶州府尹(李東溟)	증손
1683년	孤竹遺稿(初刊)	崔慶昌	淮陽府使(崔碩英)	증손
1685년	茶山集(初刊)	睦大欽	慶尙右道兵馬節度使(睦存善)	조카
1688년	洪崖遺稿(重刊)	洪侃	安東府使(洪萬朝)	후손(12세손)
1690년	市南集(初刊)	俞榮	玄風縣監(俞命興)	아들
1692년	荷衣遺稿(初刊)	洪迪	金泉察訪(洪景謙)	증손
1697년	龍溪遺稿(追刻)	金正男	益山郡守(金善淵)	후손
1703년	龍洲遺稿(初刊)	趙綱	順天府使(趙九晚)	손자
1706년	靜觀齋集(別集)	李端相	淸風府使(李喜朝)	아들
1707년	滄溪集(初刊)	林泳	淸道郡守(林淨)	동생
1707년	太虛亭集(四刊)	崔恒	全羅右道水軍節度使(崔鼎鉉)	후손(8세손)
1710년	保閑齋集(三刊)	申叔舟	順興都護府使(申必淸)	후손(8세손)
1711년	東溟集(重刊)	鄭斗卿	宜寧縣監(鄭壽崙)	손자
1712년	忍齋集(追刻)	洪暹	玉果縣監(洪可相)	후손(5세손)
1720년	月沙集(別集)	李廷龜	大邱判官(李雨臣)	종질
1722년	梅軒集(重刊)	權遇	務安縣監(權德載)	후손
1725년	涇溟齋詩集(初刊)	尹順之	江西縣令(尹沆)	증손
1726년	鳴皋集(補刻)	任鎭	金泉察訪(任述)	현손
1727년	藥圃遺稿(初刊)	李海壽	安東府使(趙榮世)	현손의 외손
1738년	槿隱逸稿(初刊)	田祿生	漆谷都護府使(田日祥)	후손
1741년	同春堂集(重刊)	宋浚吉	全州判官(宋堯輔)	증손
1765년	南塘集(初刊)	韓元震	金山郡守(金謹行)	문인

※ 손계영, “지방관과 선조 문집 간행,” 영남학, 제15호(2009), pp.242-243 내용을 재가공한 것임.

IV. 18~19세기 서원 중심으로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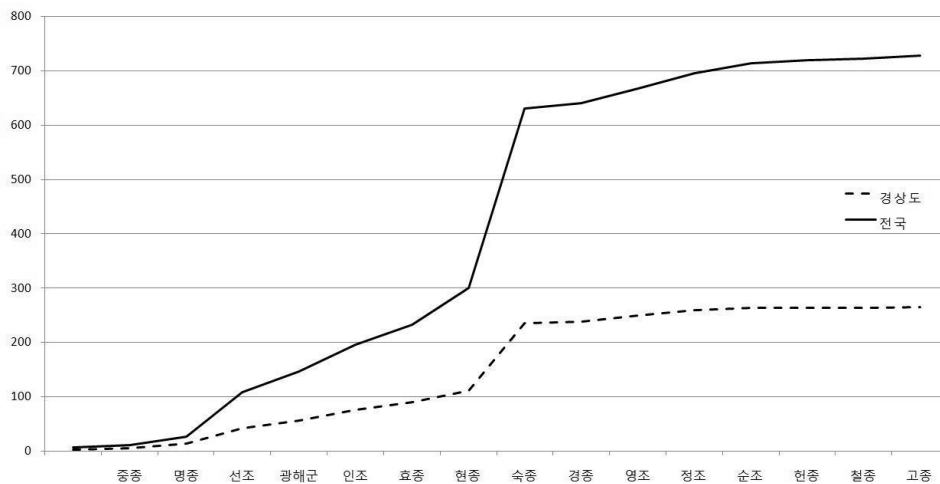
18세기 전반 이전까지 이어져왔던 지방관 중심의 문집 간행 관행은 18세기 중반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17세기에 시작된 서원에서의 문집 간행은 18세기 초중반을 넘어 서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지방관아에서의 문집 간행이 줄어드는 시기와 서원에서의 간행이 증가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엇비슷하게 맞물려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지방관의 주도에 의한 지방관아에서의 문집 간행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에는 조선후기 부세제도의 변화에서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조선후기에 시행되었던 새로운 부세제도는 지방관아의 재정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공물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대동법 시행(1608~1708)은 재원의 중앙상납분에 비해 지방유치분이 부족하여 지방관아를 운영하기에 상대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되었고, 오랜 良役變通 논의의 결과로 시행된 균역법(1751)은 減匹로 인한 각급 기관으로의 재정 지원책인 給代가 중앙기관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漁鹽船稅 등 부세원의 차단 및 총액제적 부세수취 방식인 전세 比總制(1760) 등도 지방재정의 부족 현상을

가속화하였다.¹⁷⁾

중앙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지방관아의 재정은 17~18세기의 부세 운영의 변화로 인해 중앙에 종속되어 열악한 상황을 맞이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수령·감사의 사적 지출영역의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방관의 사적 지출영역 가운데 지출의 비중이 높았던 문집 간행 사업이 우선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18세기 중반 이후로 지방관의 문집 간행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⁸⁾

한편 서원에서의 문집 간행 현상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18세기 초반을 전후한 숙종대에 서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림 1).¹⁹⁾ 서원의 수적 증가에 비례하여 서원의 배향 인물과 선양 사업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서원의 주요 사업으로 문집 간행이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면서 집중적인 간행이 이루어졌다.



〈그림 1〉 조선시대 전국 및 경상도 소재 서원의 시기별 분포

※ 송양섭, “조선시대의 서원분포에 관한 일고찰,” 춘천교육대학논문집, 제28집(1988), p.252. 데이터 기준으로 재가공한 것임.

- 17) 부세제도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에 관해서는 아래의 연구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 시스템의 재발견 -17~19세기 지방재정사연구*(서울: 역사비평사, 2008); 권기중, “조선 후기 부세의 운영과 감사의 역할,” *역사와 현실*, 제81호(2011), pp.187-212; 김태웅, “조선 후기 감영 재정체계의 성립과 변화,” *역사교육*, 제89집(2004), pp.163-193; 정연식, “균역법 시행 이후의 지방재정의 변화,” *진단학보* 제67호(1989.06), pp.31-43.
- 18) 17~18세기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대부분 노론 계열의 인물이었고, 노론 계열의 지방관들은 자신의 인맥과 관련된 인물 중심으로 문집을 간행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남 인물의 문집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영남 사람들의 세금과 부역으로 운영되었던 관아 재정이 노론계 인물의 문집 간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남인계 인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던 영남지역 사족들의 불만이 크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특히 18세기 초중반은 영남인들이 조정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던 시기였으며 관아재정이 악화되었던 시기였기에 영남 관아에서의 노론계 문집 간행 사업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후기 지방재정의 변화에 따른 지방관아에서의 문집 간행의 양상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19) 송양섭, “조선시대의 서원분포에 관한 일고찰,” *춘천교육대학논문집*, 제28집(1988), pp.249-265.

서원에서의 문집 간행은 17세기에도 꾸준히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1600년(선조 33) 도산서원에서 『退溪集』, 옥산서원에서 『晦齋集』, 伊山書院에서의 『嘯阜集』을 선두로 1622년 덕천서원에서 『南冥集』, 1641년 龜巖書院에서 『龜巖集』, 1649년 廬江書院에 『鶴峯集』, 1663년 西溪書院에서 『德溪集』, 1671년 三溪書院에서 『冲齋集』, 1681년 龍谷書院에서 『遜菴全書』, 1686년 濫溪書院에서 『介庵集』 등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서원에서 간행된 문집의 대상은 당시 서원에 배향된 최고의 학자이자 사상가였기 때문에 매우 극소수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관의 단독 결정에 의해 간행되었던 지방관아의 문집 간행과는 그 진행과정에 큰 차이가 있었다. 공론·교정·간행 과정이 복잡하고 신중한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추앙되었던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17세기 서원에서 간행된 문집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숙종대 서원 수의 급격한 증가와 배향 인물을 위한 선양 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문집 간행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이 시기에 지방관아에서의 문집 간행이 대동법 시행에 이어 균역법·비충제에 이르기까지 부세제도의 변화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서원에서의 문집 간행으로 그 사업 반경이 자연스럽게 옮겨갔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중반부터 서원에서의 문집 간행이 집중되기 시작되어 19세기에는 서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3>은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 가운데 서원에서 간행하였던 문집의 책판이다.

<표 3>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서원 간행 문집 책판(일부)

간행시기	문집명	저자	간행주체
1680년	松巖集	權好文(1532~1587)	청성서원
1680년	寒岡集	鄭逵(1543~1620)	회연서원
1705년	梧里集	李元翼(1547~1634)	병산서원
1710년	栢谷集	鄭嵎壽(1538~1602)	회연서원
1730년	凝溪實記	玉沽(1382~1436)	목계서원
1732년	密菴集	李栽(1657~1730)	고산서원
1740년	梧峯集	申之悌(1562~1624)	장대서원
1743년	謙菴集	柳雲龍(1539~1601)	화천서원
1746년	退溪先生續集	李滉(1501~1570)	도산서원
1750년	白雲子詩稿	權商遠(1591~미상)	삼계서원
1752년	冲齋集	權檣(1478~1548)	삼계서원
1753년	南屏文集	鄭璞(1734~1795)	목계서원
1766년	艮齋集	李德弘(1541~1596)	오계서원
1771년	溪巖集*	金垚(1577~1641)	도산서원
1772년	溫溪集	李滄(1496~1550)	도산서원
1773년	修巖集	柳軫(1582~1635)	병산서원
1775년	聽天堂集	張應一(1599~1676)	동락서원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3호)

1775년	希菴集	蔡彭胤(1669~1731)	병산서원
1776년	海月集*	黃汝一(1556~1622)	명계서원
1778년	逋軒集	權德秀(1672~1759)	청성서원
1783년	雲巖逸稿	金緣(1487~1544)	도산서원
1791년	拙齋集	柳元之(1598~1674)	병산서원
1797년	屏谷集*	權渠(1672~1749)	병산서원
1797년	聯芳世稿	金璫(1500~1580) · 五子	사빈서원
1799년	文峯集	鄭惟一(1533~1576)	삼계서원
1800년	龍蠻集	權紀(1546~1624)	청성서원
1801년	霧山集	金聖鐸(1684~1747)	사빈서원
1808년	訥隱集	李光庭(1674~1756)	삼계서원
1811년	松巢集*	權宇(1552~1590)	경광서원
1813년	鶴湖集*	金奉祖(1572~1630)	구호서원
1815년	泰齋集*	柳方善(1388~1443)	송곡서원
1818년	敬堂集*	張興孝(1564~1633)	경광서원
1829년	寶白堂實紀	金係行(1431~1517)	목계서원
1833년	寓軒集	柳世鳴(1636~1688)	화천서원
1837년	松隱集	朴翊(1332~1398)	선암서원
1838년	逍遙堂逸稿	朴河淡(1479~1560)	선암서원
1840년	後溪集	李頤淳(1754~1832)	동계서원
1844년	愚伏集*	鄭經世(1563~1633)	우산서원
1845년	芝厓集	鄭煒(1740~1811)	회연서원
1863년	悌友堂集	朴慶傳(1553~1623)	선암서원
1869년	雨皐文集	金道行(1728~1812)	사빈서원
1872년	雨澗集	金虎運(1768~1811)	사빈서원
1875년	憂堂集	朴融(미상~1424)	선암서원
1884년	瓢隱集	金是楹(1598~1669)	사빈서원
1892년	善迂堂集	李蒔(1569~1636)	오계서원
1898년	雲川集	金涌(1557~1620)	목계서원
1906년	愚軒集	金養鎭(1829~1901)	사빈서원
1908년	雲岡集	朴時默(1814~1875)	선암서원

※ 임노집, “서원 판각 책판의 현황과 내용,”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목판 목록집Ⅱ(안동 : 한국국학진흥원, 2006), pp.279-286. 기준으로 재가공한 것임 (*는 추가 사례 표기)



18세기 초반 이전에는 문집 간행이 지방의 관료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권문화로 인식되었으나 동법·균역법 등의 부세제도 변화로 인해 지방관아에서의 문집 간행이 줄어들면서, 지역에서 문집을 간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짐으로 인해 서원에서의 간행이 본격화되었다. 지방관 주도에 의해 간행된 사례와 서원의 주도로 간행된 사례가 같은 인물의 문집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간행 시기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표 4).

〈표 4〉 지방관과 서원에서 간행되었던 대표적인 문집의 시기별 비교

구분	문집명 (저자)	錦溪集 (黃俊良)	春亭集 (卞季良)	濯纓集 (金駟孫)	武陵雜稿 (周世鵬)
지방관에 의 한 간행	주체	단양군수 孫汝誠	경상감사 權孟孫	경상감사 金安國	영덕군수 周博
	시기	[1564~6년]	1442년	1519년	1564년
서원에 의한 간행	주체	郁陽書院	屏巖書院	紫溪書院	德淵書院
	시기	1755년	1825년	1838년	1859년

〈표 4〉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黃俊良의 『錦溪集』은 단양군수 孫汝誠에 의해 단양에서 간행되었는데, 손여성이 재임하였던 1564년에서 1566년 사이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단양의 판목이 화재로 소실되자 1775년 풍기 郁陽書院에서 重刊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두 번째 사례인 卞季良의 『春亭集』의 경우에도 1442년 경상감사 權孟孫의 주도 아래 초간본이 간행되었고, 1825년 거창 屏巖書院에서 다시 간행된 사례이다. 세 번째 金駟孫의 『濯纓集』은 1519년 경상감사 金安國이 목판본으로 간행한 이후 1838년 청도의 紫溪書院에서 다시 간행되었다. 마지막 사례인 周世鵬의 『武陵雜稿』는 1564년 저자의 아들 周博이 군수로 있던 영덕에서 간행이 이루어진 뒤 300여 년이 지난 1859년에 칠원의 德淵書院에서 다시 간행되었던 경우이다. 이들 사례는 지방관아에서의 간행과 서원에서의 간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동일 인물의 문집이다. 서원에서 간행된 시기가 18~19 세기인 반면 지방관에 의한 간행은 16세기 이전으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표 5〉 『藥圃集』의 간행주체・시기 및 책판 형태

	藥圃集(原集)	藥圃集(續集)
간행시기	1760년	1818년
간행주체	황해감사 鄭玉	道正書院
책판 형태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지방관 주도의 간행과 서원 주도의 간행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자면 鄭琢의 『藥圃集』을 들 수 있다(표 5). 정탁의 유고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대부분 유실되었는데,

1756년 저자의 5대손 鄭玉이 좌승지로 입시하자 영조가 정옥을 통해 정탁의 龍灣聞見錄과 遺象을 열람하여 御製畫像讚을 지어주었고, 이후 정탁의 문집 간행을 위해 정옥을 경상도 영해부사에 제수하도록 하였다.²⁰⁾ 정옥은 1756년 영해부사에 제수되었으나 간행을 이루지 못하였고, 3년 뒤인 1759년 황해감사로 재임하여 이듬해 海州에서 『약포집』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그 후 후손들이 원집에서 누락된 유고를 수집·편차하여 續集의 간행을 준비하였고, 1818년 저자가 배향된 道正書院에서 목판이 이루어졌다. 『약포집』의 사례는 앞서 소개한 사례들과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동일 인물의 문집이 지방관 주도로 간행된 경우와 서원 주도로 간행한 경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대표적 책판이다. 즉 18세기 지방관에 의해 정탁의 문집이 간행되었던 반면, 19세기에는 서원의 주도로 그의 속집이 간행되었던 것이다.

문집 간행이 지방관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18세기 전반 이전의 관행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었으며, 이것은 곧 중앙 진출 관료들의 특권이자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다. 그러던 것이 18세기 초중반을 넘어서며 지방관아에서 융통할 수 있는 재정이 한정되면서 문집 간행에 차질이 생겼고, 서원의 수적 증가와 함께 배향 인물에 대한 선양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중앙관료들(또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들)이 누렸던 특권 문화는 ‘서원’이라는 지역의 특권층에게로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²¹⁾

지방관아에서 목판본 간행이 줄어든 시기와 맞물려 지방관아에서 관리하였던 책판들도 타기관으로 이양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관아에서 간행·관리되었던 책판은 어느 시기가 되면 관아의 책판들이 서원·사찰 등지로 이동되어 관리·인출되었음을 책판목록 및 藏書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지방관아에서는 문집을 포함한 목판본의 간행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업무까지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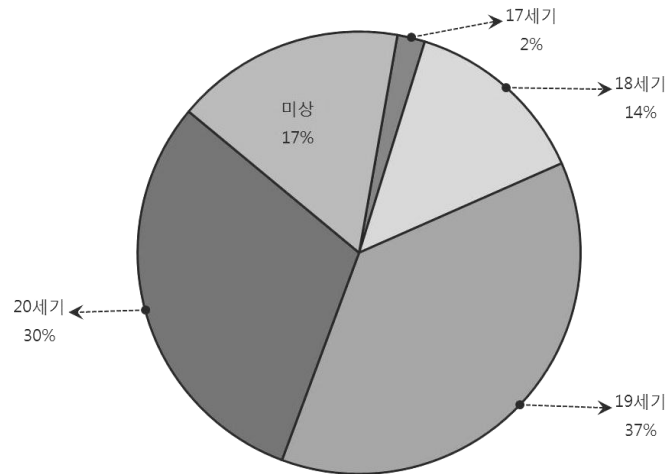
20)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9월 5일, “上曰 注書出去 左承旨鄭玉 使之入侍 鄭玉入伏 上命書古相鄭琢畫像贊 以授鄭玉 玉曰 聖恩至此 臣 感泣無地矣 仍退出”;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10월 20일, “以李最中爲執義…鄭玉爲寧海府使”; 鄭玉, 『藥圃集』, 『藥圃集跋』, “歲丙子秋 玉以左旨入侍 一日 上命弘文館 謄進臣玉先祖臣貞簡公遺稿中龍灣聞見錄 仍命宣覽遺像 賜御製畫像贊 命臣玉書諸軸頭 願謂侍臣 宜除玉一邑 俾刊其祖遺稿 及玉自嶺邑 移拜海藩 洒以公務餘暇 搜取嶺鄉子孫各家所藏草稿 與前縣監權正宅族弟室 參攷彙編 募工鋟梓”

21) 비록 문집 간행의 반경이 지방관아에서 지역의 서원으로 확장되긴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수령이 서원에 재정적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V. 19세기 후반 이후 양반층 저변으로의 확산

18~19세기 서원에서서의 문집 간행은 서원에 배향된 인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유럽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작업이었다. 서원의 인정을 받은 인물의 문집이 간행의 대상이 되었고, 서원 유럽의 공론과 동의를 통해 간행되는 것이 정식 과정이었다. 이처럼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문집 간행은 1871년(고종 8) 서원철폐령을 계기로 서원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양반층 전반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서원 철폐 이후에도 서원·서당을 중심으로 문집 간행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서원 중심의 분위기와 인식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사족들은 서원의 의견에 가치를 두었고 서원의 구성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원의 특권층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서원 철폐는 문화의 독점 경계가 무너진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세기 후반부터 사가에서의 문집 간행이 본격화 되어 20세기 초중반에는 가히 폭발적으로 간행이 이루어졌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문집 책판 중 19~20세기에 간행된 것이 70%에 육박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그림 2).²²⁾



〈그림 2〉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문집류 책판의 간행시기 분포

※ 신승운·서정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문집류 책판의 성격과 가치,” 대동문화연구, 제70권(2010), p.24. 데이터 기준으로 재가공한 것임

22)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문집류 책판의 성격과 가치” (신승운·서정문, 대동문화연구, 제70권(2010), pp.7-43.)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서원 중심의 분위기와 생활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그들의 지지 없이 문집 간행이 가능하였던 것일까? 19세기에는 목판 인쇄에 비해 저비용으로 가능한 목활자 또는 석판 인쇄가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지역에서는 무슨 이유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며 목판본 간행을 선호하였던 것일까? 그들은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서원의 지지 없이 문집을 간행하였던 것일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문집 간행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의 문집과 책판은 영남 문화의 어떤 측면이 반영된 산물일까?²³⁾

이와 같은 의문은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기존 연구에 의하면 19~20세기 문집 간행이 폭주하였던 이유가 문중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 향촌사회에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 등으로 해석되었는데 타당성이 있는 논의라 생각된다.²⁴⁾ 영남에서 문집 간행이 많은 이유에 대해 洪翰周(1798~1868)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근세에 영남의 인사들은 결핍하면 私廟를 세우고 문집을 간행하는데, 대상은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 名流가 아니라 모두 자기 고을의 선배들이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사대부의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다. 家勢가 한미해지고 조정의 벼슬을 얻지 못하게 되면 실로 문족을 지켜나가고 고을에서 호령하면서 編戶와 구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조상 중에서 글을 알고 점잖다는 소리를 듣던 이가 평소 지었던 시와 편지를 모아 판각하여 ‘某先生遺稿’라고 칭한다. ... 그러나 이들은 조정에서도 모르는 이들이고 선비들도 모르는 사람인 것이다.²⁵⁾

그는 가세가 기울고 중앙에 진출하기 어려워진 사족들이 고을에서 사대부로 행세하고 문족을 이어나가기 위해 선조의 문집 판각이 남발되었다고 거칠게 표현하였으나, 이는 당시의 실상에 대한 명확한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당시에 선조의 시문이나 유고가 아닌 實紀 형식의 간행이 많았다는 점, 유고의 분량이 적어 누대의 인물을 묶은 世稿 또는 聯芳集 형식의 간행이 성행하였다는 점, 문집의 형식이라해도 책수가 단책인 사례가 많다는 점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표 6〉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1850년대 이후 간행 문집 책판(일부)

서명	저자/피전자	간행시기	권책수
臥游堂集	朴普慶(1581~1665)	1854년	4권 2책
墨溪實紀	柳復立(1558~1593)	1856년	2권 1책
書巖實紀	裴德文(1525~1603)	1860년	2권 1책
東湖集	邊永清(1516~1580)	1860년	2권 1책

23) 이와 같은 의문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이며, 그동안 학계에서 관심 갖지 않았던 19세기 말~20세기 초중반의 책판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가치와 영남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4)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 대동문화연구, 제39권(2001), pp.375-378. ; 김종석, “한국책판의 특징과 한중일 비교,” 동아시아의 책판인쇄(안동 : 한국국학진흥원, 2008), pp.649-650.

25) 洪翰周, 『智水拈筆』. (신승운, 전계논문, p.375 재인용)

雲嶽集	李涵(1554~1632)	1861년	3권 1책
玉溪集	金命欽(1696~1773)	1863년	2권 1책
不求堂集	金沍(1606~1681)	1867년	4권 2책
桃村實紀	李秀亨(1435~1528)	1867년	2권 1책
劔南集	李鳳煥(1701~1777)	1868년	2권 1책
新安世稿	南隆達(1565~1652)	1869년	6권 3책
制庵集	鄭象履(1774~1848)	1873년	8권 4책
簡齋集	邊中一(1575~1660)	1874년	2권 1책
東里集	李五秀(1783~1853)	1884년	7권 3책
古自世獻	李幼禎 著	1891년	6권 3책
尤園集	李楨國(1743~1807)	1897년	8권 4책
壺峯集	李燾(1568~1624)	1897년	2권 1책
牟陽世稿	吳司重 編	1897년	4권 2책
樂琴軒集	李庭柏(1553~1600)	1898년	2권 1책
二恥齋集	申正模(1691~1742)	1899년	6권 3책
石窩集	權緯(1762~1835)	1899년	4권 2책
松阜文集	權靖夏(1806~1892)	1900년	4권 2책
寶白堂實紀	金係行(1431~1521)	1901년	4권 2책
淸虛齋集	孫曄(1544~1600)	1901년	2권 1책
竹扉集	鄭一鑽(1724~1797)	1903년	4권 2책
六三聯稿	朴檣茂·朴檣茂	1906년	4권 2책
益陽聯芳集	南慶薰(1572~1612) 등 24명	1907년	5권 3책
竹巢集	閔宗赫(1762~1838)	1908년	2권 1책
恥庵集	金碩奎(1826~1883)	1908년	8권 4책
點窩窩集	安道徵(1616~1678)	1908년	2권 1책
玄品文集	閔致兢(1810~1885)	1908년	2권 1책
城隱逸稿	申乞(1550~1614)	1909년	2권 1책
錦坡遺稿	朴遇賢(1829~1907)	1910년	4권 2책
無忝齋集	鄭道應(1618~1667)	1911년	4권 2책
山澤齋集	權泰時(1635~1719)	1911년	4권 2책
碧梧集	李文樸(1498~1581)	1912년	2권 1책
寧窩集	南孝源(1819~1890)	1912년	2권 1책
操省堂集	金澤龍(1547~1627)	1913년	4권 2책
溪村集	李道顯(1837~1907)	1913년	8권 4책
東川集	朴墩(1573~1654)	1915년	3권 1책
栗園集	李珙(1533~1612)	1916년	2권 1책
自足齋集	申鳳錫(1631~1704)	1919년	3권 1책
松廬集	裴相協(1766~1809)	1920년	2권 1책

喘翁集	崔興昱(1736~1809)	1921년	3권 1책
鳳下集	宋鴻翼(1802~1876)	1922년	4권 2책
仰溪集	宋希奎(1494~1558)	1924년	2권 2책
景玉遺集	李簾(1629~1710)	1925년	4권 2책
耕山集	崔蕃述(1839~1923)	1927년	8권 4책
雲齋世稿	朴仲胤·朴挺 父子	1929년	2권 1책
鶴林集	權訪(1740~1808)	1931년	10권 6책
六忍齋集	金光國(1682~1775)	1932년	5권 2책
敬庵集	吳汝機(1579~1635)	1933년	6권 3책
閑窩集	李時逸(1731~1792)	1933년	2권 1책
長阜世稿	金恁(1604~1667) 등 8인	1933년	10권 4책
愚齋實紀	孫仲墩(1463~1529)	1935년	4권 2책
愚齋集	孫仲墩(1463~1529)	1935년	4권 2책
襄敏公集	孫昭(1433~1484)	1938년	2권 1책
梅湖集	孫德升(1659~1725)	1939년	6권 3책
大隱集	邊安烈(1334~1390)	1950년	2권 1책
見山實紀	鄭期遠(1559~1597)	1962년	4권 2책
聽天堂集	張應一(1599~1676)	1967년	6권 3책
鶴湖集	金奉祖(1572~1630)	1973년	4권 2책
樊川世稿	趙以興·趙昌瑞·趙珩	1979년	3권 1책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목판 목록집Ⅲ(안동 : 한국국학진흥원, 2008), pp.21-26. 기준으로 재가공한 것임

그러나 당시의 문집 간행 폭증 양상은 문중의 명예를 선양하고 향촌사회에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 이외에도 각 사례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과거의 단편적인 기록과 일반적 견해로 19세기 이후의 문집 간행 현상을 단순하게 이해하였던 것은 아닌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당시의 문집과 책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이유 이외에 다양한 원인을 밝혀야 영남지역에 현존하는 책판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들어 19세기 후반 문집 간행이 양반층 저변으로 확산되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 사례들은 19세기 말~20세기에 간행된 문집이 간행주체 측의 지방사족으로서의 정당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당시 출판문화의 또 다른 변모 양상을 보여준다.

1907년에 간행된 『槐泉集』과 1911년에 간행된 『鰲亭逸稿』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2종의 문집은 ‘金朴易解是非’라는 鄉戰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자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행되었던 문집이다. ‘김박역해시비’란 1688년 숙종에게 올린 『周易集解』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두고 김씨가와

박씨가 사이에 일어난 시비 분쟁인데, 1900년대 초반 울산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²⁶⁾ 김씨 측은 숙종에게 올린 『주역집해』가 그들의 선조인 金邦翰(1635~1697)의 저술이라 주장하였고, 박씨 측은 그들의 선조인 朴昌宇(1636~1702)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의 분쟁은 1907년 박씨가 문중에서 박창우의 문집 『괴천집』을 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다. 박창우가 숙종의 학문을 위해 『주역집해』를 올렸다 하였고, 이때 박창우가 숙종에게 올린 『進易集解疏』를 『괴천집』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박창우의 문집이 간행된 지 4년 뒤인 1911년에는 김씨 측에서 김방한의 문집인 『오정일고』를 간행하며 김방한이 숙종에게 올린 疏로 『進新纂周易集解疏』를 그의 문집에 수록하였다. 다음 해인 1912년에는 박씨 측에서 『周易傳義集解』를 간행하면서 이것이 박창우의 저술임을 서발문에 확실히 밝혔고, 김씨 측에서도 6년 뒤인 1918년 김방한의 저술로 『周易集解』를 간행하면서 이들의 공방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목판의 간행과 서책의 배포는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남지역에 향전이 집중되었던 시기에 문집 간행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괴천집』과 『오정일고』의 사례 이외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1905년에 간행된 『京節公實紀』이다. 경주 양좌동의 손씨가와 이씨가는 孫仲暉와 李彥迪 舅甥 사이의 학문적 연원 문제를 두고 ‘孫李是非’가 있어왔다.²⁷⁾ 1733년 손중돈을 배향한 동강서원의 묘우 증건시 李象靖이 작성한 廟宇重建上樑文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씨 측의 항의와 여론의 압박으로 이상정의 상량문은 본가로 되돌아감으로써 사건은 무마되었다. 이후 1845년 손씨 측에서 손중돈의 『愚齋實紀』를 증보할 때 이상정의 묘우증건상량문을 삽입하는 문제로 논쟁이 있었고, 이때 도내 여론이 손씨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우재실기』의 묘우증건상량문 삽입은 실패하였다. ‘손이시비’가 본격적으로 표면화 되었던 것은 1905년 『경절공실기』의 간행 때이다. 1904년 이씨가에서 이언적이 쓴 손중돈의 狀文과 輓詞가 발견되었는데, 손씨 측에서 다음해인 1905년에 『경절공실기』를 중간하면서 이언적이 쓴 장문과 만사를 삽입하였고 이상정이 지은 상량문의 淵源道脈句를 附註로 실었다. 한편 이언적의 학문이 손중돈에 연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詩·跋을 수록하여 간행·배포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손씨가에서의 『경절공실기』 간행은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또 다른 사례이다.

이상의 박씨·김씨·손씨 문중에서 간행된 문집들은 모두 목판본으로 인쇄되었는데,²⁸⁾ 당시 성행하였던 목활자나 석판 인쇄를 하지 않고 많은 비용이 드는 책판으로 간행했던 이유도 주목할 부

26) 손계영, “어느 책이 진짜인가?,” 고문서로 읽는 영남의 미시세계(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pp.166-169.

27) ‘손이시비’는 이언적의 출사와 대학자로의 성장에 외삼촌인 손중돈의 역할 정도를 두고 손씨가와 이씨가 사이에 벌어진 시비이다. (이수환, “경주지역 孫李是非의 전말,” 민족문화논총, 제42권(2009), p.303. 참조.)

28) 『우재실기』와 『괴천집』의 책판은 2004년과 2005년에 기탁되어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 소장되어 있다.

분이다. 정당성의 근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배포하는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오래도록 인출되어 그 근거의 영속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서원이 존속하였던 시기였다면 서원의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제압될 수 있었고, 서원과의 관계가 불리한 쪽에서 문집을 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서원철폐령 이후 서원의 제도권이 지역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흔들리기 시작함으로써 제도권에 속하지 못했던 이들은 그들의 주장과 정당성을 출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원 철폐로 인해 제도권에 속하지 못한 이들의 욕구가 문집 간행의 형태로 발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특권층의 문화였던 문집 간행이 양반층 저변으로 확산되어 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의 문집 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문집이 간행되었는지를 밝히는 연구들이 앞으로 나온다면, 당시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문집 간행의 증가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영남지역 책판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VI.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목판본 간행이 확산되었던 배경과 문집 간행 주체의 시기적 흐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기 조정에서는 명현의 문장을 보존하기 위해 문집 간행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되었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집 간행을 주도하였다. 문집 간행의 증가와 유고의 보급 확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공간 확장 및 鑄字에서 목판으로의 인쇄기술 전환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왕의 대리인이었던 감사·수령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어 관할지역을 다스리며 관아의 재정으로 정당하게 문집을 간행하였고, 16세기부터 18세기 초반에 지방관이 주도하는 지방관아의 문집 간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들의 특권이었으며 그들의 인맥과 관련된 인물 위주로 문집이 간행되었다.

17세기를 거쳐 18세기 초중반에는 부세제도 변화로 인해 지방관아의 재정이 제한되었으며 문집 간행 사업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반면 숙종대에 서원의 수가 폭증하자 지방관 중심의 문집 간행이 18~19세기에는 서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관료 중심의 문화가 서원이라는 지역 특권층 문화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서원철폐령이 강행된 이후에는 서원·서당에서의 문집 간행은 이전 시기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존재하였던 반면, 서원의 제도권에 속하지 못하거나 서원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던 사족들의 문집 간행이 19세기 말부터 폭발적으로 이루어져 양반층 전반의 문화로 확산되어 갔다.

본 연구에서는 목판본 문집 간행의 개괄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세밀한

근거 제시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각 시기별 중요 흐름의 변화 및 그 원인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부세 제도의 변화로 인한 지방관아의 목판 간행 감소 현상, 서원의 증가와 목판본 간행과의 관계, 서원철폐로 인한 목판본 간행의 확산 양상 등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재해석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19세기 후반~20세기에 간행된 책판과 목판본에 대한 사례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 시대적 배경, 간행 주체의 상황과 함께 책판 간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19~20세기의 책판이 집중적으로 보존되어 온 영남지역의 출판문화 및 책판의 가치와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姜碩期. 月塘集. 韓國文集叢刊 86.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92.

姜希孟. 私淑齋集. 韓國文集叢刊 12.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88.

卞季良. 春亭集. 韓國文集叢刊 8.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90.

成石璘. 獨谷集. 韓國文集叢刊 6.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90.

鄭文學. 農圃集. 韓國文集叢刊 71.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91.

洪翰周. 智水拈筆. 栖碧外史海外蒐逸本 13.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4.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17~19세기 지방재정사연구. 서울 : 역사비평사, 2008.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목판 목록집Ⅰ. 안동 : 한국국학진흥원, 2006.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목판 목록집Ⅱ. 안동 : 한국국학진흥원, 2007.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목판 목록집Ⅲ. 안동 : 한국국학진흥원, 2008.

권기중. “조선후기 부세의 운영과 감사의 역할.” 역사와 현실, 제81호(2011), pp.187-212.

김종석. “한국 목판의 특징과 한중일 비교.” 동아시아의 목판인쇄, 안동 : 한국국학진흥원, 2008. pp.641-691.

김태웅. “조선후기 감영 재정체계의 성립과 변화.” 역사교육, 제89집(2004), pp.163-193.

배현숙. “조선조 서당의 서적 간행과 수장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5집(2006), pp.5-40.

손계영. “어느 책이 진짜인가?.” 고문서로 읽는 영남의 미시세계, 대구 :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pp.166-169.

손계영. “지방관과 선조 문집 간행.” 영남학, 제15호(2009), pp.229-269.

송양섭. “조선시대의 서원분포에 관한 일고찰.” 춘천교육대학논문집, 제28집(1988), pp.249-265.

신승운. “성종조의 문사양성과 문집편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8권 제1호(1995), pp.301-390.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 대동문화연구, 제39권(2001), pp.365-394.

신승운, 서정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문집류 책판의 성격과 가치.” 대동문화연구, 제70권(2010), pp.7-43.

이수환. “경주지역 孫李是非의 전말.” 민족문화논총, 제42권(2009), pp.303-329.

임노직. “서원 판각 책판의 현황과 내용.”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목판 목록집(Ⅱ), 안동 : 한국국학진흥원, 2006. pp.277-289.

정연식. “균역법 시행 이후의 지방재정의 변화.” 진단학보, 제67호(1989), pp.31-43.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Joseon-Wangjo-Sillok (朝鮮王朝實錄 :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Seungjeongwon-Ilgi (承政院日記 : Daily Records of the Royal Secretariat)

Chun-jeong-jib (春亭集 : Miscellany of Gye-Lyang Byeon, 1369~1430)

Dog-gog-jib (獨谷集 : Miscellany of Seog-Lin Seong, 1338~1423)

Ji-su-nyeom-pil (智水拈筆 : Miscellany of Han-Ju Hong, 1798~1868)

Nong-po-jib (農圃集 : Miscellany of Mun-Bu Jeong, 1565~1624)

Sa-sug-jae-jib (私淑齋集 : Miscellany of Hui-Maeng Gang, 1424~1483)

Wol-dang-jib (月塘集 : Miscellany of Seog-Gi Gang, 1580~1643)

Bae, Hyeon-Sug. “A Study on the Books Published and Stored at the Seodangs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Vol.35(2006), pp.5-40.

Chung, Yeon-Sik. “Changes in the Management of Local Financ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Equalized Tax Law.” *Journal of the Chin-Tan Society*, Vol.67(1989), pp.31-43.

Im, No-Jik. “An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and Contents on Wood-block printing of Seowon.” *Catalogue of Wood-blocks for printing in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Ⅱ)*, Andong :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2006.

pp.277-289.

- Kim, Jong-Seok. "The Valuation of Korean Wood-blocks for printing and Comparison of Korea, China, and Japan." *Wood-block printing in East Asia*, Andong :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2008. pp.641-691.
- Kim, Tae-Woong. "The Establishment and the Change of Provincial Finance System on the Provincial Government in the Late Chosun Dynasty - Focused on the Case of Jeonra Government."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Vol.89(2004), pp.163-193.
-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Catalogue of Wood-blocks for printing in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I)*. Andong :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2006.
-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Catalogue of Wood-blocks for printing in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II)*. Andong :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2007.
-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Catalogue of Wood-blocks for printing in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III)*. Andong :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2008.
- Kwon, Ki-Jung. "The Taxation process and the Governor's Role in it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Vol.81(2011), pp.187-212.
- Lee, Soo-Hwan. "The Course of Events of A Dispute between Both Families of Sohn and Lee at Gyeongju." *Journal of the Korean Cultural Studies in Yeungnam University*, Vol.42(2009), pp.303-329.
- Shin, Seung-Woon and Seo, Jung-Moon. "The Nature and Value of Woodblocks Housed in Korea Studies Advancement Center including Type of the Collections of Works." *Journal of the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ol.70(2010), pp.7-43.
- Shin, Seung-Woon. "A study of the training for the literary scholars and of the compilation and the publication of anthologies during the reign of the king sungjong in chosu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8 No.1(1995), pp.301-390.
- Shin, Seung-Woon. "The Publication Culture of Confucian Society -Emphasized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Anthology in the Chosun Dynasty." *Journal of*

the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ol.39(2001), pp.365-394.

Son, Byeong-Gyu. *Rediscovery of local finance system of Choson dynasty*. Seoul : Yeogsab Bipyongsas, 2008.

Son, Ke-Young. "Local Officials and Their Publications of Ancestor's Miscellany." *Journal of Yeungnam Region*, Vol.15(2009), pp.229-269.

Son, Ke-Young. "Which book is the real book?." *Understanding The Microworlds of Yeungnam Region Through The Old Documents*, Daegu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9. pp.166-169.

Song, Yang-Seop. "A Survey on the Distribution of Seoweon in Yi-Dynasty." *Journal of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Vol.28(1988), pp.249-265.